

신재생

산업이슈 브리프

Check Point

-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최종 합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증가
- 재생에너지로 확대는 결국 가야만 하는 길

COP28,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

Analyst 이주영 _juyzong@ebestsec.co.kr

COP28,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최종 합의

▶ 전일(12/13)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합의. 당초 폐막일은 12일이었으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 문구에 대한 산유국들의 반대로 회의 기간이 하루 지연되었으며, '화석연료로부터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표현으로 최종 합의문 변경

▶ 최종 합의문에는 1)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증가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Tripling renewable energy capacity globally and doubling the global average annual rate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by 2030), 2)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노력 가속화(Rapidly phasing down unabated coal and limiting the permitting of new and unabated coal power generation), 3)넷제로 시스템 향한 노력 가속화(Accelerating efforts globally towards net zero emission energy systems, utilizing zero and low carbon fuels well before or by around mid-century), 4)2050년까지 net zero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노력 가속화(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in a just, orderly and equitable manner, accelerating action in this critical decade, so as to achieve net zero by 2050 in keeping with the science), 5)원자력이나 탄소포집 같은 화석연료 대체 노력 가속화(Accelerating zero and low emission technologies, including, inter alia, renewables, nuclear, abatement and removal technologies such as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and storage, particularly in hard to abate sectors, and low carbon hydrogen production, so as to enhance efforts towards substitution of unabated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 6)2030년까지 메탄 배출 감축 가속화(Accelerating and substantially reducing non-CO2 emissions, including, in particular, methane emissions by 2030), 7)도로 운송에서 배출량 감소 가속화(Accelerating emissions reductions from road transport through a range of pathways, including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rapid deployment of zero emission vehicles), 8)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ing 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do not address energy poverty or just transitions, as soon as possible)가 포함

▶ 지속되는 고금리로 재생에너지 LCOE가 상승 반전하는 등 지금 당장의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음. 다만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 연준 정책 전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1.5G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최종 입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결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판단하며 신재생 산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유효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주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1.4% 8.6%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2. 10. 1 ~ 2023.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